

‘창립 40주년’ 법무법인 광장

“초심 잃지 말고 멋있는 변호사 되자”

“전문화 · 프로 · 배려정신이 광장정신”

법무법인 광장이 창립 40년을 맞았다. 1977년 12월 서울민, 형사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하버드 로스쿨(JD)을 나온 이태희 변호사가 주춧돌을 놓은 광장은 40년이 지난 12월 현재 변호사 등 전문가가 600명이 넘는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했다.

12월 13일 서울 소공동의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김재훈 대표가 주목한 광장의

성장 원동력은 전문화와 국제화. 김 대표는 또 전문화, 프로 정신과 함께 넉넉함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정신이 ‘광장정신’의 3축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로펌으로 발전해 갈 것이며, 리딩 로펌답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 따라 그 사회적 책임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01년 합병이 도약 계기

2009년 은퇴한 설립자 이태희 변호사도 이날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40주년을 맞은 광장의 발전에 감격스러워했다. 그는 특히 “2001년 송무 쪽을 강화하기 위해 김재훈 변호사에게 송무를 잘 하는 곳을 한번 알아보라고 장난삼아 얘기한 것이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그해 7월에 성사된 구 한미와 구 광장의 합병



1977년 문을 연 법무법인 광장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12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태희 설립자 등 내빈들이 김재훈 대표의 안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얘기를 소개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약 18분에 걸친 격려사를 통해 이태희 변호사가 후배들에게 주문한 두 가지는 고객을 왕으로 섬기고, 정도를 걸으라는 것. 그는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준수의무와 컨플릭트 금지를 주문하고, “고객을 지도하려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은지 낙점은 당신이 하라”고 제안하는 그런 변호사가 일류 변호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가 후배들에게 당부한 것도 “초심을 잃지 말고 멋있는 변호사가 되라”는 것.

광장은 이날 광장의 1세대로서 광장 발전의 초석을 놓은 이태희 변호사와 박우동 전 대법관, 박준서 전 대법관, 유경희 전 대표변호사,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한승헌 전 감사원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LI**